

## 원발성 스테로이드 반응성 신증후군 환자의 첫 관해를 위한 장기 스테로이드 요법의 효과

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소아과학교실<sup>1</sup>, 포천중문의과대학 구미차병원 소아과학교실<sup>2</sup>

홍은희<sup>1</sup> · 이환석<sup>2</sup> · 황현희<sup>1</sup> · 박숙현<sup>1</sup> · 조민현<sup>1</sup> · 고철우<sup>1</sup>

### Effect of Long-term Steroid Therapy in Children with Primary Steroid Responsive Nephrotic Syndrome

Eun Hui Hong<sup>1</sup>, Hwan Seok Lee<sup>2</sup>, Hyun Hee Hwang<sup>1</sup>, Sook Hyun Park<sup>1</sup>, Min Hyun Cho<sup>1</sup> and Cheol Woo Ko<sup>1</sup>

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Department of Pediatrics<sup>1</sup>  
Pochon CHA University Kumi CHA medical center College of Medicine Department of Pediatrics<sup>2</sup>

**목적 :** 원발성 스테로이드 반응성 신증후군 환자의 첫 관해를 위한 치료로 6주간의 경구 스테로이드 요법이 보편화 되고 있다. 이에 6주 요법의 치료 효과를 알아보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.

**방법 :** 2004년 9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원발성 신증후군으로 경북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에 입원하여 첫 치료로써 스테로이드 6주 요법을 시행한 23례를 대상으로 하였다. 이들을 대상으로 각종 임상 특징과 검사실 성적 및 첫 치료 후 관해까지의 기간, 첫 치료 후 재발까지의 기간, 재발 빈도 등을 의무기록지를 통해 후향적으로 조사하였다. 또한 이를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원발성 신증후군으로 경북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에 입원하여 첫 치료로써 스테로이드 4주 요법을 시행한 73례와 비교 분석하였다.

**결과 :** 6주 치료군의 진단 당시 평균 연령은 5.3세였으며, 남녀 비는 16:7였고, 조직 검사는 6례에서 시행되어 5례가 미세 변화형 신증후군, 1례가 국소성 분절성 사구체 경화증으로 진단되었다. 첫 치료 후 관해까지의 기간은 평균 7.8일이었으며 재발은 전체의 74%인 17례에서 일어났는데 진단 후 첫 재발까지의 기간은 평균 5.6개월이었고 진단 후 첫 1년간 재발횟수는 평균 1.5회, 다음 1년간은 2.9회였다. 환아들의 성별, 진단 당시 연령, 단백뇨량, 혈뇨 유무와 진단 후 첫 재발까지의 기간, 재발 빈도와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.

4주 치료 군과 비교해 보았을 때 6주 치료군은 첫 재발까지의 기간이 길고 (5.6개월 vs 4.7개월), 첫 1년간 재발 횟수가 적은 경향을 보였다 (1.5회 vs 2.6회). 그러나 6주 치료군의 재발율은 4주군과 차이가 없었으며 (74% vs 78%) 관해기간에 따른 재발율의 비교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. 부작용은 6명에서 발생하였는데 moon face가 4례, 다모증이 5례, 고혈압, 비만, 여드름, striae가 각각 1례였다.

**결론 :** 원발성 스테로이드 반응성 신증후군 환자의 첫 관해를 위한 치료로 6주 요법이 4주 요법에 비해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으나 우리나라 소아에서 이의 확인을 위해 추후 전국적인 규모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.

**Key Words :** 신증후군, 장기 스테로이드 요법  
Nephrotic syndrome, Long- term Steroid Therapy